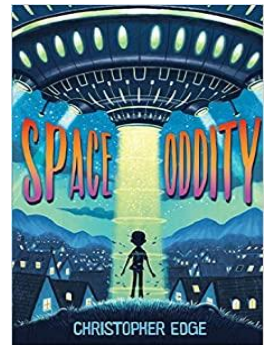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PACE ODDITY
가제 : 스페이스 오디티
저자 : Christopher Edge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1년 1월 7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SF 판타지



* 그 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외계인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머가 넘치는 SF 소설

* 수상 작가가 선보이는 과학, 코미디, 모험이 가득한 신작

어느 날, 소년 제이크는 언제나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 같은 아빠가 결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심지어 아빠는 온몸이 가끔 초록빛으로 빛날 때도 있었다. 과연 제이크의 아빠의 정체는 무엇일까? 레이저 광선 총, 블랙홀, 외계인 등 흥미로운 소재들과 서로 너무나 다른 아들과 아빠의 이야기와 함께 흥미진진한 우주 액션이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12년 전, 처음 그것은 별뿔처럼 보였다. 은빛 줄무늬는 어두운 밤 하늘색과 더 대조되어 밝게 빛났다. 곧 그 빛은 '미들위치 숲'으로 떨어졌고 파란색과 흰색 빛이 깜빡이더니 3개의 빛나는 구체가 솟아났고 그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명소리와 공포에 질린 횡설수설이 들려왔다. 그 미확인 물체는 별뿔이 아니라 하늘에서 추락한 우주선이었던 것이다. 그 우주선 화면에는 계속해서 추락한 곳이 여행 금지구역이며 모든 통신이 두절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이온은 외계인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인간처럼 보였다. 그는 머리 하나에 팔 두 개, 다리 두 개에 외계인에게 있을 법한 그 흔한 촉수라곤 하나도 없었고 다만 눈에 띄는 밝은 녹색의 피부에 은색 점프 수트를 입고 있었다. 이온은 곧 이제 곧 선체가 기화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자 겁에 질렸고 서둘러 구명 보트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곧 그의 몸은 섬뜩한 빛에 사로잡혔고 이온은 몸의 원자들이 점차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12년 후, 제이크는 학교 축제 때문에 다스 베이더, 추바카 등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한껏 꾸미고 왓자지껄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들 속에 서 있었다. 저녁에는 우주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합창 대회와 댄스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제이크는 그 중 한 합창단이 부르는 'Space Oddity'라는 노래를 듣고 멈칫했다. 그 노래는 제이크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종종 외계인인척 하곤 했던 세계적인 가수 '데이빗 보위'의 노래였다. 제이크의 아빠는 항상 그

가수가 등장하는 오래된 영상을 유튜브로 틀고는 제이크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 제이크가 보기에 그 가수는 절대 외계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 이상해 보였고 아빠는 제이크에게 그가 얼마나 위대한 록스타인지 이야기하곤 했다. 제이크는 아빠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타 연주를 하는 시늉을 내고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빠가 사실 록스타가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이크의 아빠는 늘 자신의 본명인 '이온 존스' 대신 '이온 코스모스'가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건 바로 우주에서 가장 큰 스타가 되고 싶다는 뜻이었고 제이크는 노래도 못하는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미쳤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제이크의 아빠는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이온은 얼마 전 슈퍼에서 일하던 중 셀프 서비스 계산기가 자신을 기화시키려고 한다며 난리를 쳤고 결국 실직까지 했지만 오히려 실직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얼마 후 제이크는 자신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학교 공연장으로 찾아온 엄마를 발견했고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곧바로 자신이 맡은 스타워즈 공연을 위해 무대 위에 올랐다. 루크 스카이워커 역을 맡은 제이크는 공연 도중 다스베이더 역할을 맡은 친구가 평소 보다 훨씬 키도 커 보이고 연습 때는 하지 않았던 동작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사인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부문에서 다스베이더는 갑자기 가면을 벗었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제이크는 다스베이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아빠 이온이라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신나 보이는 이온과 달리 제이크는 그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제이크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던 첫 날, 이온은 제이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밀 알려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온몸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겁에 질리도록 만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공연 날이 지나고 어느 날, 제이크는 자신의 피부 역시 초록색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제이크는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던 중 미확인 비행물체 하나가 이상한 광선을 내뿜으며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때 갑자기 수풀 속에서 이온이 뛰쳐나왔고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비행물체는 온데 간데 없었고 제이크는 이 일로 또 망신을 당했지만 곧 아빠가 12년 전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원시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은하계에서 쫓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친구들에게도 이 외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린다. 과연 제이크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무시무시한 킬러 로봇들과 기상천외한 외계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삽화들과 결코 뻔하지 않는 새롭고도 젊은 감각을 갖춘 외계인 이야기를 담은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엣지 (Christopher Edge)는 작가가 되기 전에는 영어 교사, 편집자 및 출판업자로 일한 바 있다. 현재 그는 글을 쓰지 않을 때에는 프리랜서 출판업자 및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전작으로는 『The Infinite Lives of Maisie Day』 이 있다.

제목 : Knight Sir Louis

가제 : 기사 루이스 제1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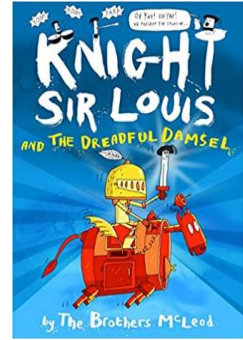
저자 : McLeod 형제

출판사: Guppy Books

발행일: 2020년 8월 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유머 / 모험 / 시리즈 4권 예정 / 그림O



*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BAFTA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맥 레오드 형제의 독창적인 신작

* "정말 재미있는 책. 모험을 좋아하고 웃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 매력을 느끼게 될 책."- 필립 리브

* "이런 영웅이 있다니! 모든 페이지마다 송고한 바보스러움이 느껴지는 책이다."- 제레미 스트롱

파티를 조직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 기사 트릭시의 아들 기사 루이스는 겨우 열두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왕국에서 가장 용감하고 (말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비밀이다.) 차분하며 현명하기로 잘 알려진 용사였다. 그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전장으로 그와 함께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믿음직스러운 기계 말 '클런칼롯'이 있었는데 이 말은 충직할 뿐만 아니라 시를 사랑하는 낭만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용감히 날아오르는 것을 즐거워했다. 또한 기사 루이스에게는 마법의 거울을 재활용해 만든 신비의 검 ('데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이 있었는데 이 검은 때때로 끔찍한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긴 했지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 루이스는 이 왕국의 친구들과 함께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든 의문의 기사와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결코 이 세상은 그에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기사 루이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린이 독자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만한 유쾌한 영웅담이다.

기사 루이스는 이웃 나라 그 어떤 유명한 기사들보다도 용감하기로 알려진 기사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칭찬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은 결코 용감한 사람이 아니며 다만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동안 자신은 그저 침착함을 잘 유지 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지방의 한 영주가 말이 이끄는 이층 버스에 갇힌 적이 있었다. 당시 그 영주는 왕실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안에는 영주 말고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오른 군주들과 숙녀들이 가득했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던 그 때, 루이스는 그들이 탄 버스의 창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창문을 통해 버스로 들어가 버스 문을 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쿼럴 햄 왕국의 국왕 버트 (완전히 착한 왕은 아니지만 결코 나쁜 왕은 아닌 사람이며, 컴퓨터 게임과 파티를 좋아하는 왕)는 비록 네 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루이스에게 굶주린 용, 사악한 고블린, 극악무도한 마법사들과 싸울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사이드웨이브스 캐슬을 지키는 수호자로 임명했다.

루이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무기이자 친구 클런칼롯이 있었는데 이 기계 말은 혼자서 마법을 독학한 예비 궁정 마법사이자 발명가인 펄린이 루이스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펄린은 원래

남쪽의 큰 마을인 라르르르던 출신으로 마법과 마법 기계에 대해 가르치는 미스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가 세운 학교에 입학할 계획으로 스쿼럴 험 왕국으로 온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유명한 현자 미스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악인으로 돌변하는 바람에 장학금이 취소되었고 결국 쫓겨난 아직까지 아마추어 마법사이자 발명가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사실 루이스 역시 원래 농부인 아빠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되려 했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늘 농사를 망치기만 했고 그의 아빠는 루이스에게 더 이상 밭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스의 엄마 기사 트릭시는 도심에 불일이 있어 출장을 가야 했는데 그녀는 집에 홀로 남아 있을 루이스에게 그 누구에도 문을 열어 줘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집에 있던 루이스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고 우유를 한 잔 달라는 마녀를 만나게 되었다. 루이스는 돈이 없다는 마녀에게 대신 아빠를 감동시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의문의 씨앗들을 받았다. 루이스는 밤 새 몰래 그 씨앗을 심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밭에 엄청나게 큰 괴상한 식물이 자라 집과 가축들을 집어 삼키려고 했다. 결국 루이스는 부모님에게 진실을 털어놓았고 루이스의 엄마는 용감히 그 모든 식물들을 물리쳤다. 이 일로 루이스는 원래 꿈을 접고 엄마를 따라 기사가 되기로 맹세하게 된 것이다.

한편 버트 왕은 오랜만에 이메일 대신 위급한 파발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곧바로 클런칼롯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루이스에게 당장 성으로 들어오라는 메일을 보냈다. 버트는 루이스에게 엄청난 키와 몸집을 가진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갑자기 마을을 습격해 온 마을을 짓밟았고 은행에서 돈과 초콜릿 동전까지 다 강탈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왕은 특히 한동안 초콜릿을 품절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루이스에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물리치고 이 사건을 해결해 오라고 명령했다. 루이스는 곧바로 클런칼롯에게 올라탔고 클런칼롯에게 장착 된 센서 덕분에 아주 쉽게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찾아냈다. 루이스는 그 여인이 무지막지하게 긴 다리로 성큼성큼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로 가고 있었고 루이스는 당장 클런칼롯에게 긴 다리를 뺏어 먼저 그 다리로 달려가 다리를 파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둘은 그 여인의 속도에 밀리고 말았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둘에게 가까이 오더니 용처럼 파란 불꽃과 빨간 불꽃을 마구 뿜어대며 공격을 시작했다. 게다가 위험한 적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줄무늬 모양이 새겨진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기사 스트라이피'가 등장한 것이다. 루이스는 과연 이 모든 위험에 맞서 진정한 기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일즈 맥로드, 그렉 맥로드 (Myles McLeod, Greg McLeod)는 형제로 2018 년 Sundance Film Festival에서 초연 된 'Marfa'를 포함한 단편 영화로도 유명하며 공동 저작으로는 『Create Your Own Universe』가 있다.